

간접적 언어행위연구의 화용론적 토대에 대하여

박성철(고려대)

0. 머리말

언어행위의 간접성에 관한 논의는 영미권뿐만 아니라 독일어권에서도 70년대 중반 썬얼Searle(1975)이 제기했던 이른바 이중 발화수반행위이론(Theorie der doppelten Illokutionen)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고, 간접화행(indirekte Sprechakte)은 많은 언어학 입문서 및 화용론 문헌에서 대표적인 화용론적 현상으로 다루어져 왔다.¹⁾ 그런데 썬얼Searle의 이론이 내포하고 있는 몇 가지 모순점들과 행위이론적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은 많지 않았고, 특히 발화수반행위(illokutionärer Akt)의 차원을 넘어선, 보다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의사소통행위의 층위에서 관찰할 수 있는 다양한 간접성현상들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그리 많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기존의 연구는 또한 간접성현상을 구성하는 제반 요인들에 대한 철학적 반성을 등한시했고, 그 귀결로서 연구대상에 걸맞는 화용론적 접근방식을 유보시킨 채 의미론적 접근방식에 머물러 있었다. 의미론적 접근방식에 기초를 두면서 화용론적 접근방식을 보충하고 있는 썬얼Searle의 이론은 통일성과 설득력에서 그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썬얼Searle을 비롯한 초기화행론에서 엿볼 수 있는 이러한 의미론적, 반(反)화용론적 접근방식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간접성연구가 어떠한 흔들리지 않는 사실들 및 그에 대한 통찰들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고찰해 보겠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간접적 발화의 의미구조와 그 작동방식에 대한 논의가 될 것이다. 이때 무엇이 간접적 의사소

1) 독일어권에서는 분덜리히Wunderlich(1975)가 선구자격이다. 간접화행을 부분적으로나마 다룬 책들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다스칼Dascal(1983), 하라스Harras(1983), 힌델랑Hindelang(1983), 리이치Leech(1983), 레빈슨 Levinson(1983/90), 야누셱Januscek(1986), 그리인Green(1989), 수카로브스키Sucharowski(1993), 세게르달Segerdahl(1996).

통행위를 비로소 가능하게 하는가, 즉 간접적 발화를 산출하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제반 요인들을 발견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이다.

1. 문제제기: 언어행위와 간접성

말을 함으로써 특정한 (언어)행위를 수행한다는 것은 이미 언어학에서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화용론의 기본적 대전제이다. 이 분야의 초기저술인 써얼Searle(1969)의 『Speech Acts』는 이 전제에 대한 설명인데, 이 책은 말하자면 언어행위의 내재적 구조를 분석한 것이다. 모든 발화수반행위는 내재적 충족조건들을 갖는데, 이 조건들은 특정한 상황에서 하나의 행위가 수행되기 위하여 그때 그때 충족되어야 할 어떤 것이 아니라 상황과 무관하게 이미 그 행위에 내재해 있는 행위의미의 한 부분이다. 그리고 써얼Searle의 관점에서 발화의 행위성격, 즉 화자의 구체적 발화수반의도를 규정할 수 있는 근거는 다름 아닌 문장의의미에 있다. 모든 문장은 - 마치 사람이 옷을 입고 있듯이 - 발화수반행위의 표지(Indikator)를 지니고 있으며, 이 표지를 근거로 특정 발화수반행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언어행위에 관한 이 패러다임은 써얼Searle(1975)의 『Indirect speech acts』에서도 기본적으로 유지되고 있다.²⁾ 이러한 의미론적 고찰방식에서 행위의 수행방식에 대한 고려가 차지할 자리는 원칙적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다. 행위의 수행방식이란 그 자체로서 매우 다양하고 복잡적이며, 반드시 특정 상황과 결부된 의미를 파생시키기 때문에 행위에 내재해 있는 속성들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³⁾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바로 이 수행방식과 언어수단선택에 대한 고려가 간접성연구에 오히려 더 본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간접적 언어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제기할 수 있다:

-
- 2) 1969년의 『Speech Acts』와 1975년의 『Indirect speech acts』의 차이는 후자에 'indirect'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인데, 이는 써얼이 간접성에 관한 한 여전히 화행(speech act)에 대한 그의 기초입장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 3) 써얼Searle(1969: 20)은 이미 『Speech Acts』에서 말한 것(Gesagtes)과 의도한 것(Gemeintes)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을 의사소통에서 비본질적이라는 이유로 제외하고 있다.

- (1) 내연적, 외연적 정의의 문제: 간접적 언어행위의 본질은 무엇이고, 어떤 현상들이 간접적 언어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가?

- (2) 설명의 문제: 간접적 행위의 구조와 그 작동방식의 문제. 간접적 언어행위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화자와 청자 사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의 관여적 의사소통의 단위로서 작동하는가?

- (3) 기능의 문제: 간접성이 의사소통상황에서 이룩하는 성능은 무엇인가? 달리 표현하자면, 화자가 하나의 행위수행방식으로서 간접성을 선택하게 되는 동기는 무엇인가?

본고에서는 폭넓고 복합적인 논의가 될 문제 (3)을 제외하고, 아래 3과 4에서 간접적 의사소통행위를 구성하는 화용론적 요인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간접성연구의 방향설정을 시도해 보겠다. 주어진 연구대상의 외적 현상형태의 기술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비로소 가능하게 하는 복합적, 역동적 요인들을 분석하는 일이야말로 모든 인문과학에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이중 발화수반행위이론의 문제점

간접성에 관한 써얼Searle의 이중 발화수반행위이론은 이미 잘 알려져 있고, 그동안 여러 곳에서 충분히 거론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굳이 다시 상세하게 소개하지는 않겠고, 단지 위에서 제기된 문제와 맞물리는 부분에 한해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그밖에 독일어권에서 나온 그와 유사한 이론과 견해들을 보다 중점적으로 다루겠는데, 아래의 비판은 이들 학문적 업적을 가치 절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의 적절한 연구방향 설정을 위한 밑거름을 만드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1. '간접성' 개념의 모호함

이 중 발화수반행위에 대한 가정은 독일어권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가령 에리히/자일레Ehrich/Saile(1975)는 화자에 의해 의도된 의사소통적 기

능과 이를 위해 사용된 통사-의미론적 수단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여 직접적, 간접적 화행을 정의하려 시도했다. 가령 발화의 의사소통적 기능이 다음과 같은 수단을 통해 실현될 때 그 발화는 직접적이라고 간주된다: (가) 문형(Satztyp)과 같은 통사적 상응수단; (나) 상응하는 수행동사; (다) 이 기능을 특징지어주는 표지(Indikator). 그리고 실제로 의도된 의사소통적 기능과 이러한 언어적 특징들 사이에 괴리가 존재할 때 그 발화행위는 간접적이다 (256쪽). 이들 세 조건은 모두 발화체에 실현되어 확인될 수 있는 언어적 수단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일단 언어(학)적 기준으로 간주될 수 있다. 에리히/자일레Ehrich/Saile는 의도된 의사소통적 기능을 실현되지 않은 행위로, 그리고 이를 위해 사용된 언어적 수단을 실현된 행위로 간주하는 데, 그렇다면 여기서 이들이 행위의 실현여부를 이미 입밖에 나와 있는 발화체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히 드러난다. 즉 발화체의 외적, 언어적 특징이 곧 상응하는 행위의 실현과 다름이 없다는 입장이다.

프랑크Franck(1975)도 마찬가지로 명시적으로 발화체지향의 행위개념을 내놓는다: “화행은 언어적 수단이 표시하고 있는 발화수반행위의 유형이 일치적으로 의도된 발화수반적 기능과 일치하지 않을 때 간접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219쪽).⁴⁾ 이들 정의에서 드러나듯이 간접적이라는 개념은 발화의 의사소통적 기능과 언어적 수단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적용되는 부가어이다.

또 다른 의미에서 사용되는 간접성의 개념은 본래의 이중 발화수반행위 이론과 관련있다. 이 이론의 기본가정은, 모든 간접적 화행과 동시에 직접적 화행이 수행되고, 또 간접적 화행의 의도된 의사소통적 기능과 직접적 화행의 실현된 의사소통적 기능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생각에 따르면 간접적 행위는 실제로 의도되었으나 숨겨진, 즉 통사-의미론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행위인 반면에 직접적 행위는 실제로 의도되지 않았으나 통사-의미론적으로 실현된 행위이다. 가령 써얼Searle은 앞의 것을 일차적 발

4) 쾰머만/뮐러Zimmermann/Müller(1977: 242)는 보다 애매하게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die manifeste Form des Sprechaktes stimmt nicht mit der für die Erfüllung der Intention von S ‘eigentlich’ nötigen Form überein”.

화수반행위(primary illocutionary act), 뒤의 것을 이차적 발화수반행위(secondary illocutionary act)라 부르고 이들을 각각 “not literal”, “literal”(62쪽)로 특징지우고 있다. 이때 간접적이라는 말은 분명 위에서처럼 발화체에 붙여지는 말이 아니라 보다 추상적인 발화수반행위에 붙여지는 명칭이다. 말하자면 여기서 직접적이나 간접적이라는 용어들이 위에서 쓰인 바와 정반대로 쓰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간접적이란 말은 위의 의미에서 실현된 행위, 즉 발화체에 대하여 붙여졌는데, 가령 화자가 청자로 하여금 맥주를 가져오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할 때: (A) Ich hoffe, du hast ein Bier im Eisschrank. (진술 = 간접적 <요청>) (에리히/자일레 Ehrich/Saile 1975: 257), 이 발화체 자체가 간접적 화행인 셈이다. 직접적이란 말은 위의 의미에서 표면적으로 실현되지 않았지만 실현가능한, 즉 실현될 수도 있었을 행위들 중의 하나인데, 무엇보다도 화자의 의도를 가장 잘 드러내는 문장이 이에 속한다. 가령 다음과 같은 문장이 여기에 해당된다. (B) Bring mir ein kaltes Bier. (직접적 <요청>). 이처럼 간접적이라는 부가어를 이미 실현되어 있는 발화체에 대하여 붙일 것인가 아니면 실현되지 않은, 실제로 화자에 의해 의도된 가상의 발화체 내지 추상적인 발화수반행위에 대해 붙일 것인가가 결정되지 않고 언제나 혼동되고 있는 것은 초기 간접성이론의 맹점중의 맹점이라 할 수 있다.

그밖에 두 개의 발화수반행위를 가정하는 귀결로서 두 행위 사이의 관계가 철저히 의미론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포함의 관계로 파악된다. 위의 예에서 Ich hoffe,...는 본디 실현되었을 수도 있었을 직접적 <요청>행위 Bring mir...의 도입조건들 가운데 하나를 테마화시켰다는 것이다.⁵⁾ 이 이론에 따르면, 하나의 행위가 간접적인 이유는 그 행위의 발화체가 지니고 있는 형태, 통사, 의미론적 특징이 그 발화체에 의해 표현되어 있지 않은, 화자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가정상의 발화체, 즉 소위 직접적

5) “Ein indirekter Sprechakt SPA2 ist Teil eines direkten Sprechaktes SPA1 und kann als der intendierte gefolgert werden, wenn SPA1 unter gewissen Kontextbedingungen eine der für die direkte Realisierung von SPA2 konstitutiven Voraussetzungen thematisiert” (에리히/자일레 Ehrich/Saile(1975: 258f.)).

발화체의 의미와 부분-전체 내지 전제-결론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상대방이 냉장고에 맥주를 갖고 있는 것이 그에게 맥주를 갖다 달라고 요청할 수 있기 위한 전제이며 달리 말해서 뒤의 것은 앞의 것을 이미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간접성에 대한 의미론적 접근방식을 토대로 하고, 의사소통과정에서 청자의 능동적 역할을 도의시킨 채 주어어진 발화와 그 발화가 내포하고 있는 어떤 다른 가상의 발화만을 고려의 대상에 넣는다. 동일한 대상에 대한 화용론적 접근방식은, 가령 위의 예에서 (A)가 간접적인 이유가 무엇보다도 이 발화의 화자가 청자로 하여금 발화의 의미를 그가 실제로 의도한 의미로서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서 어떤 다른 의미를 찾도록 했고, 또 청자는 맥락과 배경지식 그리고 화자 및 청자 사이의 상호가정을 근거로 발화체가 축어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화자의도와 구별되는 어떤 화자의도를 추론하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설명할 것이다. 그 추론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는 초기 화행이론가들이 가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미리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원칙적으로 각각의 의사소통상황에서 청자의 추론과정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며, 바로 이것이 간접성이론에 반영되어야 한다.

끝으로 이중 행위이론에서 간접성은 언제나 직접성과의 의존성 속에서, 즉 직접성의 동시적 존재를 전제로 이 둘 사이의 관계에 의거하여 설명될 뿐이다. 다시 말해서 간접성의 고유한 기능이라든가 작동방식은 차치하고라도 단지 그것이 직접성과 갖는 의미론적 관계에 의해서만 규정되었던 것이다. 이 때 직접성과 간접성은 하나의 발화가 가진 두 측면에 다름 아니다: 간접성은 의도되긴 했으나 발화체에 표현되지 않은 행위와 관련되고 직접성은 의도되진 않았으나 발화체에 표현된 행위와 관련된다. 다시 말해서 직접성과 간접성은 하나의 발화에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되는 두 행위에 대해서 붙여지는 성격부가어들이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 하나의 발화는 직접성과 간접성의 두 축 사이의 어느 한 곳에 자리잡을 뿐이다.⁶⁾ 하나의 발화는 직접적이든가 간접적이든가 또는 어느 정도 직접적 또는 간접적이지 직접적 행위임과 동시에 간접적 행위일 수는 없다고 본다.

6) 이에 대해서는 블룸-쿨카Blum-Kulka(1989)와 바이츠만Weizman(1989) 참조.

2.2. 발화의 의사소통적 역할에 대한 무관심과 오해

이중 행위이론의 지지자들은 간접화행에 대하여 가능한 두 가지 반응이 바로 이중 발화수반행위에 대한 자신들의 가정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Kannst du mir das Salz reichen?에 대해서 청자는 Ja라고 반응하거나, 아니면 곧바로 화자가 그에게서 의도한, 소금을 건네주는 행위를 수행할 수도 있다. 써얼Searle의 이론에 따르면 Ja라고 대답한 것은 이 발화의 이차적 발화수반행위인 <질문>에 대한 반응이고, 곧바로 소금을 건네 준 것은 일차적 발화수반행위인 <요청> 내지 <부탁>에 대해 반응한 것이다. 언뜻 설득력있게 들리는 이 주장은 좀 다른 시각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Ja가 과연 실제로 질문에 대한 대답인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보다 선명하게 부각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명령-복종의 예를 살펴보자:

아버지: 《아들의 방이 매우 지저분한 것을 보고 아들에게》 칠수야, 당장 방 청소하거라!

아들: 예 (아버지).

아들의 반응은 비록 질문에 대한 대답과 동일한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그 기능은 분명히 다르다. 즉,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 내지 지시에 따르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질문을 하지도 않았고 따라서 논리적으로 어떤 긍정적 답변도 원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아들에게서 바라하는 반응은 아들이 자신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다. 아들은 이 지시에 따르면서도 마치 질문에 대답하는 것처럼 예라고 말하는데, 이때 이 반응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사소통적 기능을 갖는가는, 만약 아들이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을 경우를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아들의 묵묵부답에 대해 아버지는 가령 너 도대체 아빠 말 들었니? 또는 청소하겠다는 거야, 안하겠다는 거야?식으로 반응할 것이다. 이로써 - 의사소통의 경로에서 나타난 장애든 또는 한 쪽에서 다른 쪽에게 협동적으로 대하려 하지 않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든 - 어쨌든 의사소통상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상황은 특히 대인관

계에서 귀속지위상 열세에 있는 아들의 입장에서 더욱 더 피해야 할 어떤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아들은 예라는 말로써 자신이 아버지의 지시를 이미 알아들었고 또 그에 따르겠다는 표시를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지령발화에 대한 반응은 순수한 결정의문문(Entscheidungsfrage)에 대한 반응과 형태는 동일하더라도 그 기능은 현저히 다르다. 바로 이 기능을 도외시키고 형태적 동일성에만 근거하여 Ja라는 반응이 바로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화자는 어디까지나 긍정적인 대답도 부정적인 대답도 원하지 않으며 그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 아버지가 아들에게서 그 어떠한 대답보다도 자신의 방을 청소하는 것을 원하듯이 - 청자가 그에게 소금을 건네 주는 행위일 뿐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써얼Searle은 발화의 의사소통적 기능을 그 발화의 일차적 기능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문장범주의 구속력에만 매달리는 나머지 받아들이 수 없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2.3. 문장범주와 행위범주의 혼용

이중 행위이론에서 가장 큰 문제는 소위 이차적 발화수반행위(sekundär illokutionärer Akt)의 행위성격을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는가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차적 행위를 위해 쓰인 언어적 수단에 행위성격을 부여할 수는 없다. 수단과 목적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게다가 언어행위의 의사소통적 기능은 그 기능을 위해 사용된 수단이 아니라 대부분 발화의 부대상황에 의존한다. 발화(Äußerung)의 의도성 내지 기능과 같이 화용론적으로 규정해야 할 범주와 문장(Satz)의 통사, 의미론적 특징은 서로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행위수단이나 행위표지만으로선 아직 행위가 될 수 없고, 이들은 의사소통상황에서 발화순간에 청자의 해석과정에서 어떤 특정한 역할을 수행할 때 비로소 행위를 규정하는 단위로서 간주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결코 행위 그 자체는 아니다. 이중 행위이론의 중대한 오류는 서로 다른 두 가지 기능이 마치 동일한 성격의 기능인 것처럼 가정한다는 데 있다. 하나의 화행을 결정짓는 기준인 발화수반적 목적(illokutionärer Zweck)이 확인될 수 없는 축어적 의미(wörtliche Bedeutung)로부터 그에 상응하

는 발화수반행위의 존재가 추론될 수는 없다.⁷⁾ 축어적 의미는 오히려 발화수반적 목적(Zweck)을 달성하기 위한 의미론적 수단(Mittel)이라고 파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하나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많은 언어적 수단이 사용될 수 있다. 청자에게 소금을 건네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은 그 수많은 수단들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이번에는 위에 든 예를 써얼Searle 자신의 이론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해 보자. 하나의 독자적인 발화수반행위이라면 그에 걸맞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 있어야 한다. Kannst du mir das Salz reichen?의 경우 이차적 <질문>행위이라면 첫째, 묻는 사람, 즉 화자가 찾고 있는 정보를 스스로 갖고 있지 않아야 하고 (도입조건), 둘째, 그가 찾는 정보를 갖기를 원해야 하고 (성실성조건), 끝으로 이 발화는 청자한테서 그 정보를 이끌어 내려는 시도로 간주되어야 한다 (본질적 조건). 이 <질문>화행의 조건들 중에서 도대체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는가? 바로 써얼Searle 자신의 이론에 비추어 보아도 이 예에서 <질문>이 하나의 독자적 발화수반행위가 될 수 없음이 드러난다.

여태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보건대, 써얼Searle이 말하는 두 개의 발화수반행위 중 이차적 발화수반행위는 분명 화용론적 범주가 아닌 문장의 의미론적 범주임이 드러난다.⁸⁾ 이차적 발화수반행위란 발화체에 내재한 문장의 형태, 통사, 의미론적 특징을 행위의 차원으로 전이시킨 것에 불과하다. 이것은 진정한 화자의 의도성에 기초한 언어행위로 볼 수 없다.

2.4. 문장지향적 발화수반행위론의 한계

이 중 행위이론은 분명 축어적 발화수반역할에 대한 가설⁹⁾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가설에 따르면 모든 문장형식은 이미 특정 발화수반역할과 연결된다. 가령 가장 흔한 문장유형인 진술문, 의문문, 명령문은 각각 특정한

7) 다스칼Dascal(1992: 42f.) 참조.

8) 힌델랑Hindelang(1983: 96)과 세게르달Segerdahl(1996: 171f.) 참조.

9) 이른바 "Hypothese der wörtlichen Kraft"에 대해서는 레빈슨Levinson(1983/90: 5.5장) 참조.

발화수반역할과 결부되어 있는데, 진술문의 경우 <확증> (FESTSTELLEN), 의문문의 경우 <질문> (FRAGEN), 명령문의 경우 <명령/요청/요구> (BEFEHLEN/ AUFFORDERN/VERLANGEN)가 그에 해당된다. 간접적 화행이 문장에 속해 있는 발화수반역할 이외에 추론된 또 하나의 다른 발화수반역할을 갖는다는 가정을 받아들인다면 실제 언어사용에서 대부분의 발화는 단지 화자에 의해 실제로 의도된 발화수반역할과 문장의 범주 사이의 괴리만으로 간접적 화행에 속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괴리는 너무나 보편적인 현상이므로 더 이상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파악하기가 불가능해진다.

화행이론은 발화수반역할을 규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다분히 문장지향적이며 청자의 추론의 결과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 청자측의 추론의 결과는 단지 문장지향적 설명모델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장식 내지 추가적 부연 설명에 불과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라이스Grice(1957, 1975)에 기원을 둔 추론이론(Inferenztheorie)¹⁰⁾에서는 청자가 주어진 발화의 축어적 의미와 맥락정보로부터 화자에 의해 실제로 의도된 발화수반역할을 도출해 내는 과정을 본질적인 것으로 본다. 따라서 Kannst du...?같은 발화는 써얼 Searle이 가정하듯이 처음부터 <부탁>이 아니라 청자에 의해 <부탁>으로 해석될 뿐이라고 본다.¹¹⁾ 다시 말해서 <부탁>이라는 의사소통적 기능이 이 발화에 이미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 청자의 머리 속에서 발화해석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¹²⁾ 이 발화가 매우 빈번하게 식탁에서와 같은 전형적인 상황에서 소금을 건네 달라는 부탁의 목적으로 쓰이고 또 청자에 의해서 항상 그렇게 해석된다는 사실로부터 이 발화가 원래 <부탁>이라는 기능을 갖는다는 식으로 결론 내려질 수는 없다.¹³⁾

10) 이에 대해서는 간접성에 대한 관행적 접근(conventional approach)과 자연적 접근(natural approach)을 대비시키고 있는 모어건Morgan(1978) 참조.

11) 이처럼 써얼Searle이 불필요하게 처음부터 일차적 발화수반행위를 못박은 데 대해서는 베틀러트Bertolet(1994: 336-340)의 비판 참조.

12) 부르크하르트Burkhardt(1986)는 보다 과격하게 일차적 발화수반행위가 화자에 의해 의도된다고보다 추론과정을 통해 화자의 머리속에서 비로소 구성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데, 더 나아가서 하나의 간접화행은 그것이 화자가 의도한 바로 그 의미에서 청자에 의해 인지될 때만이 성립한다고 본다.

13) 추론이론 중에서도 급진적인 방향은 축어적 발화수반역할가설, 즉 발화가 문장

문장지향적 발화수반행위관의 귀결로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반어적, 은유적 발화나 암시와 같이 발화체 표면에 해당 발화의 발화수반의도를 나타내는 표지가 없는 경우 내지 그러한 표지의 존재 여부 자체가 의사소통상황에서 전혀 관여적이지 않은 경우, 이러한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의사소통행위를 다루는 데 있어서 화행론은 명백한 한계를 보여준다. 썬얼Searle(1969)의 입장에서 보면 간접화행은 사용이 관행화되어 있는 경우와 발화의 축어적 의미가 충분히 행위의미론적으로도 분석가능한 경우에 한정되는 반면에 반어적 발화나 은유적 발화와 같은 수사적 표현은 소위 이차적 발화수반행위, 즉 축어적 행위(wörtlicher Akt)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이고, 바로 그러한 점에서 간접화행의 예들과 구분된다. 따라서 썬얼Searle은 이러한 표현방식들을 행위론적 시각아닌 의미론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데,¹⁴⁾ 사실 이 표현방식들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발화에 어떤 발화수반의도 내지 역할이 내재하는가가 아니라 화자가 무엇을 말했고 그로써 청자에게 무엇을 전달하려 의도했는가이다. 즉 말한 것과 의도한 것이 서로 유기적 관계속에서 함께 상황적 관여성과 의사소통적 의미를 창출하는 것이다. 썬얼Searle의 간접성개념은 간접성현상의 바로 이러한 의사소통적 측면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결함을 보인다.

짧게 말해서 간접성이란 썬얼Searle에게 있어서 소위 축어적 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 관행화된 경우에 한정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일상언어적 의미에서 간접적이라 인정될 수 있는, 말한 것과 의도한 것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수많은 언어행위 수행방식들만 보더라도 지나치게 좁은 견해라

차원에서 이미 발화수반역할을 갖는다는 가정 자체를 거부한다 (가즈다Gazdar (1981) 참조). 따라서 썬얼Searle이 말하는 의미에서의 간접화행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발화수반역할을 맥락속의 발화 안으로 옮기는 문제만이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발화수반역할이라는 것이 완전히 화용론적인 성질을 가지며 문형이나 문장의미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령 의문문같은 경우 그 어떤 축어적 발화수반역할이 부인될 필요도 없이 어차피 수많은 종류의 발화수반역할로 사용될 수 있다. 언어행위에 대해 취하는 이러한 접근방식에서는 의미론이 최소한의 역할만을 수행하고 발화수반역할을 규정하는 과제를 전적으로 청자에게 넘긴다.

14) 썬얼Searle(1979/82) 참조.

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간접성에 관한 한 문장지향적이 아닌, 본래적인 의미에서 의사소통지향적인 관점이 새로 도입되어야 한다.

3. 간접성연구의 패러다임 교체: 씨얼에서 그라이스로

의사소통지향의 간접성이론은 그라이스Grice(1957, 1975)의 의사소통이론(Theorie des Meinens)과 대화함축이론(Theorie der konversationellen Implikaturen)의 두 단계를 통해 정립될 수 있다. 우선 비자연적 의미(nicht-natürliche Bedeutung)에 관한 그라이스Grice(1957)의 통찰은 언어적 의미와 인간의 의사소통에 관한 이론으로서 그 중심생각에 따르면, 하나의 의사소통행위, - 더 정확히 말하자면 - 하나의 의사소통시도는 수용자와 관련된 화자의 일련의 의도들로써 정의될 수 있다.

‘화자가 X로써 청자에게 A를 전달하려 의도한다(meinen)’는 것은 다음 조건하에서이다:

- (가) 화자는 청자가 특정한 반응 r을 보이도록 의도한다.
- (나) 화자는 청자가 그의 의도 (가)를 파악하도록 의도한다.
- (다) 화자는 청자가 (가)의 파악을 근거로 특정한 반응 r을 보이도록 의도한다.

그라이스Grice에 따르면 화자는 어떤 표현으로써 (일반적인) 언어사용자(man)가 그 표현을 가지고 보통(normalerweise) 상대방에게 전달하(려 의도하)는 것을 전달하려 의도한다. 보통의 경우 X와 A가 서로 결합되어 있다면 A는 언어사용자가 X와 결합시키는, X의 언어적 의미(sprachliche Bedeutung) 또는 관습적 의미(konventionelle Bedeutung)이다. 화자는 X로써 청자에게 A를 전달하려 의도하고 청자는 화자가 사용한 X로부터 A를 이해한다. 화자가 X를 사용함으로써 청자에게 다름 아닌 바로 A를 전달하려 의도했다면, 이것은 일반적인, 즉 언어의 관습적 의미에 충실한 언어사용이다.

이 모델이 시사하는 바는, 화자가 청자로 하여금 자신의 의사소통적 의

도를 파악하게끔 하려는 의도로 하나의 신호를 보내며 궁극적으로 청자가 이러한 화자의 의도들을 파악했을 때, 즉 해당 신호에 특정한 의도나 의미를 부여했을 때 비로소 의사소통이 성립한다는 것이다.¹⁵⁾ 청자의 반응은 화자의 발화로부터 특정한 의도나 의미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 이 의사소통모델이 갖는 장점은 그것이 동시에 하나의 이해모델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언어의 관습적 의미에 관한 이론이자 의사소통(시도)에 관한 이론이라 할 수 있는 비자연적 의미에 관한 그라이스Grice의 규정에서는 언어수단의 관습적 의미와 벗어난 어떤 다른 의미를 전달하고 이해하는 의사소통방식에 대해서 아직 이야기가 없다. 그라이스Grice는 실제 의사소통상황에서 자주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그의 대화함축이론(1975)에서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이론은 의사소통시도에 관한 위의 추상적 모델을 실제의 언어사용차원으로 확대한 데서 나온 것이다. 대화함축현상 자체가 말한 것(Gesagtes)과 의도한 것(Gemeintes) 사이의 괴리를 전체로 하므로 당연히 이해의 문제를 내포하며, 이때 의도를 간접적 방식으로 알린다는가 그 의도를 추론을 통해 파악한다는가 하는 대화참여자의 사회적, 심리적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사실 인간의 의사소통에서 매우 기본적인 현상이다. 어쨌든 그라이스의 두 이론은 의사소통의 실체에 접근하는 데 유용한 도구를 마련해 주고 있으며, 특히 간접적 발화가 구성되고 이해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매우 적합한 도구이다.¹⁶⁾

이제 간접성 연구를 위한 패러다임 교체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론적 지향점을 찾기 위해 언어학적 화용론의 구상과 관련된 써얼Searle과 그라이스Grice의 두 가지 상반된 방향에 대한 다스칼Dascal

15) 이같은 의도파악의 중요성에 특별히 주목하게 되면 자칫 그라이스의 의미이론이 지나치게 의도주의적(intentionalistisch)이라는 딱지를 붙이기 쉬운데, 사실 그라이스가 언어적 의미의 관습성을 무시한 것은 아니고, 위에서 밝혔듯이 오히려 화자가 하나의 언어수단으로 청자에게 보통 의도하게 마련인 상황을 모델화함으로써 해당 언어수단의 일반적이고 관습적인 의미(konventionelle Bedeutung)를 정의하려 시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16) 이에 대해서는 박Park(2000: III.3.3)과 박성철(2000) 참조.

(1994: 332)의 비교를 검토해 보자. 이 두 방향은 화용론의 대상과 과제, 형식, 방법론을 이해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난다:

써얼의 화행론	그라이스의 대화함축이론
단일화자중심	대화중심
형태중심	비형태중심
관습적	비관습적
문법모델	비문법적 모델
구성적 규칙	발견적 규칙, 선가정
내포관계	함축현상
의미론적	화용론적 ¹⁷⁾

비록 그라이스Grice가 명시적으로 간접성에 대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그의 입장을 추적해 볼 수 있겠다. 그라이스Grice는 써얼Searle이 자신의 화행도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부적절하고 일탈적이거나 심지어 하나의 행위로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하는 모든 발화들을 그러한 발화들이 그렇지 않은 평범한 발화들과 달리 특유하게 갖고 있는 전혀 다른 특징들을 고려하고 의사소통 내지 합리적 행위 일반을 지배하는 일반적인 원칙들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이 원칙들은 대화규칙(Konversationsregel)이라 불리어지지만 대화라는 특정 의사소통형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사회적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매우 일반적인 원칙들이며, 규칙도 엄밀한 의미에서의 문법적 규칙과 다른 성격을 갖는, 원칙에 대한 다른 이름일 뿐이다. 이 원칙들은 실제 의사소통상황에서 선가정(Vorannahmen)으로 기능하며 발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배경지식으로도 기능한다.

잘 알려져 있는 그라이스의 대화함축현상은 바로 간접적 의사소통행위의

17) 이 두 방향은 이미 그 고찰대상부터 다르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오스틴Austin과 마찬가지로 써얼Searle도 발화수반행위를 관습적 행위로 생각한다. 이들은 각각의 행위를 지배하고 행위수행 자체가 의존해 있는 구성적 규칙들을 상술함으로써 그 본질이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대표적인 메카니즘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함축이론을 이용한다면 대부분의 간접적 발화가 작동하는 방식이 밝혀지리라고 기대해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화자가 그가 말한 것과 전혀 다른 어떤 것을 전달하려 의도했다고 하는 간접성에 대한 일상언어적 이해에서 출발해서 이 의사소통현상을 구성하는 화용론적 요소들을 분석해 보겠다.

4. 간접적 의사소통행위의 구성적 요인들

본 단원에서는 발화체에 내재한다고 가정되는 발화수반목적 내지 -의도에 한정된 화행의미론적 시각을 넘어서서 더 넓고 일반적인 층위에서 나타나는 간접성현상을 고찰하기 위해 - 간접화행(indirekte Sprechakte)이라는 고정된 개념 대신에 - 간접적 언어행위(indirekte Sprachhandlung)라든가 간접적 의사소통행위(indirekte kommunikative Handlung) 또는 의사소통적 간접성(kommunikative Indirektheit)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겠다.¹⁸⁾ 이 주제에 대한 연구는 당연히 의사소통적 현실에 보다 더 가까운 관점과 관찰결과를 기초로 행해져야 한다.

4.1. 해석행위의 유발자로서의 발화의미

써얼의 의미에서 이차적 발화수반행위와 같이 문장을 통해 실현된 통사-의미론적 범주는 의사소통적 간접성이론에서 화자가 청자의 해석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선택한 수단, 즉 해석유발자(Auslöser)로 간주된다. 해석유발자에는 상황을 배제한 문장의미(Satzbedeutung)와 특정상황 속에서의 발화의미(Äußerungsbedeutung)가 속하는데, 물론 여기에 본래적 의미에서의 행위 성격은 부여될 수 없다. 문장의미가 상황이 배제된 언어내재적 의미로서 써얼Searle에 의해 부당하게 행위의 차원으로 전이되었다면, 발화의미는 하나의 발화체가 특정 맥락에서 사용되는 의미이다. Kannst du mir das Salz

18) 이 개념들은 각각 어디에 중점이 두어졌느냐에 따라 서로 구분될 수 있지만, 모두 기본적으로 본고의 대상을 나타내고 있다.

reichen?의 예에서 문장의미는 ‘소금 Salz을 건네 줄 수 있는(reichen) 청자(du)의 능력(können)에 관한 질문(어순과 억양)’이고 발화의미는 ‘식탁에서 특정 화자가 특정 청자에게 소금을 건네 줄 수 있는지 질문했다는 사실’이다. 청자는 주어진 발화의미로부터 화자의미, 다시 말해서 화자가 그의 발화로써 궁극적으로 청자로 하여금 의도했던 내용을 추론해내야 하는데, 이 발화의 경우 그것은 ‘소금을 건네 달라는 <부탁>’이다. 썬얼의 이중 발화수반행위이론으로 말하자면 청자는 몇 단계의 추론을 거쳐 <부탁>이라는 화자의도를 파악하는데, 여기서 특기할 만한 것은, 이 추론과정이 특별히 짧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 문장이 식탁에서 관행적으로(konventionell) 질문이 아닌 부탁의 의도로 말하여지고 또 청자에 의해 그렇게 이해되기 때문이다. 다른 아닌 수단과 형태의 관행성이 발화의미로부터 화자의미를 도출해내는 경로를 대폭 줄였으며, 청자는 관행적이지 않은 경우에 비해 보다 쉽고 빠르게 화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¹⁹⁾ 그러나 높은 관행성으로부터 두 개의 발화수반의도의 동시적 존재를 추론해선 안될 것이다.

간접성이론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발화의미 자체만이 청자의 간접적 해석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발화상황이나 배경지식과의 관련성속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풍자만화에 나타난 반어적 발화의 예를 들어보자.

《독일 축구대표팀이 2000년 유럽축구선수권대회 예선리그 첫 경기에서 루마니아팀과 1:1로 비기고 나서 영국팀에 0:1로 지고 난 후 마지막 경기에서 또 다시 포르투갈팀에 0:3으로 대패한 직후에, 전광판에 [Portugal 3 : 0 Deutschland] 라고 불이 들어와 있고 독일 축구대표팀 유니폼을 입은 두

19) 이러한 종류의 관행성이란 언어차원에서 가령 한 낱말의 음성형식과 내용 사이에 존재하는 관습성 내지 임의성 또는 무연성이 아니라 사용차원에서 특정한 의사소통적 목적이 해당 상황에서 어떤 수단을 통해 빈번히 실현됨으로써 이 수단이 언어공동체의 구성원들에 의해 그 목적을 위해 고정적으로 쓰이게 된 현상을 가리킨다. 모어건Morgan(1978)은 이 현상을 축약된 함축short-circuited implicature이라 부르는데, 썬얼이 들고 있는 간접화행의 대부분의 예들이 이 범주에 속한다. 이 개념에 대해서는 호른/마이어Horn/Bayer(1984)도 참조.

독일 축구팬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 중 한 사람이» Na, das läuft ja wie geschmiert!

이 경우 발화의미는 축어적으로 해석되어선 안된다. 최근의 여러 경기에서 여실히 드러난 독일팀의 현재 수준 내지 팀내부적으로 마찰이 심하다는 사실 (상황)을 알고 있고 또 독일축구가 한때 세계정상에 섰던 역사 (배경 지식)를 알고 있다면, 축어적 발화의미는 분명 모순적인 것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발화의미는 화자가 청자에게 궁극적으로 이해시키고자 했던 내용을 직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게끔 하는 수단이 아니라 다른 경로를 통해 우회적으로 파악하게끔 하기 위하여 선택한 수단으로 볼 수 있는데, 이때 이 수단의 특성은, 독일팀의 현재 상태에 대하여 청자 (이 예에서는 이 만화의 독자도 포함된다)가 갖고 있는 지식과 정반대되는 평가를 내림으로써 청자로 하여금 발화의미를 그대로 자신의 실제 전달의도내용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어떤 다른 내용을 찾으라는 메타신호와도 같다는 것이다.

4.2. 화자의미

간접적 의사소통행위를 구성하는 핵심요소는 무엇보다도 화자의미 (Sprecherbedeutung)이다. 화자의미란 화자가 특정 의사소통상황에서 청자로 하여금 자신의 발화로부터 이해하게끔 만드는 모든 종류의 정보이며 동시에 청자가 화자의 발화로부터 궁극적으로 추론해내야 할 대상이다. 화자의미는 대화참여자의 상호가정의 결과로서 발화로부터 청자에게 전달되는 실체이며 더 이상 화자중심의 발화수반의도처럼 이론적이거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개별적이고 문맥의존적인 의미유형으로서, 구체적 의사소통상황에서만 생겨나고 상호작용(Interaktion)에 바탕을 둔 내용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화자의미의 가장 큰 특징은 언어적 표현 자체가 가지는 의미나 규칙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사용규범같은 지식체계를 통해 추론된다는 것이다. 이 맥락에서 화자의미는 정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구성되는 과정에 있는 어떤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또 하나의 특징으로서 화자의미는 불특정하다는 성격을 갖는다. 비록 불특정적이라 하더라도 전혀 규정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왜냐하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추론능력을 바탕으로 산출가능하기 때문이다.

간접성이론내에서 중요한 것은 화자의미가 논리적 성질의 명제내용뿐만 아니라 화자의 의사소통적 의도와, 그밖에 발화순간에 청자 또는 발화대상이나 주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Einstellung) 및 감정상태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위의 예에서 화자는 발화주제인 독일축구의 현재상태에 대한 어처구니없음 또는 실망스러운 감정을 간접적 행위방식의 한 종류인 반어법을 통해 매우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청자가 실제로 알고 있는 사실과 발화의를 통해 표현된 내용은 정반대의 관계에 있으며, 화자의 현재 감정상태는 이 차이의 폭만큼이나 크고 분명하게 청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3. 의사소통원칙들을 매개로 한 상호가정

화자의미를 구성하거나 이해하는 과정은 그 본질상 문법현상에서처럼 그렇게 범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따라서 언제나 분명한 경계선이 없는, 연속적이고 불특정한 가치와 관련하여 규정되어야 한다.²⁰⁾ 그러므로 화자의미의 발생과 이해는 문법적 규칙보다 훨씬 느슨한 형태의 의사소통적 원칙들(Prinzipien)에 의거하여 설명될 수 있다. 그라이스Grice의 협동원칙(Kooperationsprinzip)과 그 세부적 격률체계(Maximensystem)가 바로 그러한 원칙들이며, 화자의 발화행위와 청자의 해석행위를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하는 책략적 규칙체계이다.

간접성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개별적 대화함축(partikularisierte konversationelle Implikaturen)이 발생하는 기제이다. 화자는 청자에 대한 고려에서 격률들 가운데 하나를 고의적으로, 즉 드러내놓고 여기고, 그럼으로써 청자에게 발화와의미와 다른 화자의미를 찾도록 자극한다. 청자의 입장

20) 리이치Leech(1983: 23) 참조.

에서는, 화자가 비록 말하여진 것의 층위에서는 격률을 어기고 그에 따라 협동원칙을 어긴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화자가 실제로 그러했다는 데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화자는 결국 의도의 층위에서는 해당 격률과 협동원칙을 지켰음에 틀림없다고 가정한다. 더 나아가서 청자는 화자가 협동원칙과 대화격률들을 지켰다는 가정과 양립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을 찾게 된다. 왜냐하면 협동원칙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는 발화의미만으로는 화자가 궁극적으로 전달하려 의도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내용은 어쨌든 협동원칙을 지켰을 것이라는 가정과 합치되는 내용이어야 한다. 이때 청자가 갖고 있는 화자에 대한 선지식, 그리고 상황맥락과 언어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큰 역할을 수행한다. 위의 독일축구팀의 예에서 화자는 '근거가 부족한 것을 말하지 말라'는 질의 격률을 명백히 어김으로써 청자의 해석행위를 유도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화자는 청자가 추론을 통해 그가 궁극적으로 전달하려 의도했던 내용을 충분히 도출해낼 수 있으리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처럼 간접성은 의사소통 참여자들의 공동 의미구성을 위한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행위 수행방식이라 할 수 있다. 달리 말해서 청자는 현재 진행중인 의사소통상황에 그만큼 더 깊숙히 참여하게 된다.

4.4. 상호행위적 사고와 발화행위 및 해석행위의 간주관성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화자의 재귀적인 의도는 꾀머만Zimmermann(1984)이 수용자반응의 예견이라 부르는 현상과 일맥상통한다. 이것은 텍스트생산자가 특정 의사소통목표를 실현시키려 시도할 때 수용자의 지식, 사회적, 제도적 소속, 이념적 태도, 문화적 소속성, 상황추정 등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자신의 의사소통적 기여에 대한 그의 가능한 반응들을 예상하는 과정이다. 바로 이러한 수용자반응의 예상은 모든 의사소통활동에 내재해 있는 상호행위적 역동성을 반영한다.²¹⁾ 간접적 발화에서는 이 원칙이 보다 철저

21) "Das Prinzip der Antizipation möglicher Rezipientenreaktionen reflektiert die interaktive Dynamik, die jeder Kommunikation innewohnt" (꾀머만Zimmermann

히 활용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렇지 못할 경우 이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간접적 발화는 그 본질상 청자에 의해 화자의 의미가 제대로 이해되었을 때 비로소 성립한다. 따라서 화자는 첫째, 자신의 간접적 발화가 청자에 의해 비간접적 발화로 파악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둘째, 청자가 화자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청자의 이해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언어수단을 선택하는 데 - 비간접적 발화의 경우보다 더 -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용자반응의 예상이라는 원칙이 간접성과 관련하여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상호행위적 사고(interaktives Denken)가 궁극적으로 인간 의사소통의 전제이자 목표인 간주관성을 보장해 준다고 가정할 때 그러한 상호행위적 사고에 기초하는 간접성이야말로 화자에서 청자로, 청자에서 화자로의 쌍방향에서 공히 대화참여자의 간주관성지향의 사고유형을 매우 잘 보여주는 행위방식이라 할 수 있다. 간주관성의 원칙은 몇 가지 형태로 실현된다: 첫째, 모든 의사소통적 발화는 간주관성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즉, 화자는 청자가 자신의 의도를 파악하도록 한다. 둘째, 간주관성은 청자가 화자의 바로 그 의도를 파악했을 때에도 실현된다. 간주관성의 실현은 이 경우 화자의 의미가 대화적 추론을 거쳐 청자에 의해 이해되는 과정에 기초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간주관성의 성립은 화자와 청자의 공통된 선지식에 근거한다. 즉 화자와 청자는 언어적 코드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원칙들 및 다른 종류의 지식체계들을 공유한다.²²⁾ 이 모든 형태의 간주관성은 간접적 의사소통행위를 통해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데, 첫째, 화자의 의도가 청자에 의해 어떻게 파악되는지, 둘째, 간접적 발화는 다른 해석가능성이 열려 있

(1984: 132)). 이러한 기본적인 텍스트생산자의 태도는 문어텍스트의 경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공간, 시간적 거리의 제약과 문어텍스트의 문서적 성격으로 인해 수용자반응에 대한 회신이 가능하긴 하지만 매우 번거롭고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심지어 학문같은 특정 분야에서 수용자의 가능한 반응들을 예상하는 것은 확대된 의사소통의 규칙들 중의 하나이다. 수용자반응의 예상은 문어뿐만 아니라 구어텍스트 산출에서도 기본적인 원칙들 중의 하나이다.

22) 언어적 의사소통에서 간주관성(Intersubjektivität)에 대해서는 쉬프린Schiffrin(1990: 132-149)과 레빈슨Levinson(1995: 253) 참조.

음에도 불구하고 왜 늘상 화자가 의도한 바대로 해석되는지, 또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지, 끝으로 화자와 청자는 어떤 공동의 전제와 선지식을 서로에게서 가정하는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간접적 발화가 이해되는 순간에 간주관성의 원칙은 이 세 가지 형태에서 실현된다.

5. 맺음말

유명한 써얼Searle의 이중 발화행위이론은 무엇보다도 언어행위의 간접성의 본질 및 그에 따른 외연적 정의문제, 그리고 이론적 설명의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화자의미는 과연 화자의 발화수반의도로 축소될 수 있는가, 화자가 두 개의 의사소통적 목적을 추구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만약 써얼Searle이 말하는 발화수반의도가 의사소통적 목적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단지 발화체의 형태, 의미론적 특성에 불과한 것이라면 결국 이중의 행위에 대한 가정은 그 타당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또한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화행론과 거기에 속한 개념도구가 간접성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가 등등의 문제점들을 위에서 거론했다.

써얼Searle이 간접화행의 보기로 들고 있는 예들은 대부분 Can you pass the salt?와 같이 높은 정도로 관행화되어서 더 이상 진정한 의미에서 간접적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경우들이다. 그러한 문장들을 제외한다면 우리가 일상언어적 의미에서 간접적이라고 간주하는 전형적인 표현법들이 존재한다. 가령 반어법(Ironie), 은유법(Metapher), 암시(Andeutung)같은 수사적 표현법들인데, 이 표현법들의 경우 대부분 써얼Searle의 의미에서 발화수반 의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상황에서 각각의 표현방식들이 수행하는 기능이 더 문제가 된다. 즉, 화자가 무엇을 의도했는가하는 문제보다 화자가 왜 그렇게 말했는가하는 문제가 더 중요해진다. 이와 같은 연구대상의 상이성을 감안한다면, 써얼Searle의 간접성이론은 심지어 규범으로까지 관행화된 경우에만 - 간접화행으로서 - 그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위에서 든 바와 같은 나머지 다수의, 언어행위의 수행방식과 관련된 표현법은 의사소통적 간접성이라고 하는 더욱 폭넓고 일반적인 개념으로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본다. 간접성에 관한 이론은 말하여진 것과 의도된 것 사이의 관

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이어야 하며, 이 이론을 바탕으로 위에서 예시한 각각의 간접성의 종류들에 대한 경험적 분석이 뒤따라야 한다.

끝으로 간접적 언어행위는 화자의 일방적인 통보행위가 아니라 언제나 청자와의 긴밀한 사회적, 심리적 관계 속에서 성립하고 수용되는 협동적 언어사용의 대표적 형태이고, 전형적인 파트너지향적 발화행위이며 발화구성과 발화이해에서 간주관성을 전제로 하고 동시에 목표로 하는 언어행위 방식이라 특징지을 수 있다.

참 고 문 헌

- 박성철(2000): 반어적 의미의 규정방식과 그 성격에 대하여. 텍스트언어학 8, 365-393.
- Bertolet, R.(1994): Are there indirect speech acts? In: Tsohatzidis, S. L.(ed.): *Foundations of Speech Act Theory*. Philosophical and Linguistic Perspectives. London u.a., 335-349.
- Blum-Kulka, S.(1989): Playing it safe: the role of conventionality in indirectness. In: Blum-Kulka, S. et al.(eds.): *Cross-cultural Pragmatics: Requests and Apologies*. Norwood, 37-70.
- Dascal, M.(1992): On the pragmatic structure of conversation. In: Parret, H./Verschueren, J.(eds.): *(On) Searle on Conversation*. Amsterdam, 35-56.
- Dascal, M.(1994): Speech act theory and Gricean pragmatics. Some differences of detail that make a difference. In: Tsohatzidis, S. L.(ed.): *Foundations of Speech Act Theory*. Philosophical and Linguistic Perspectives. London u.a., 323-334.
- Ehrich, V./Saile, G.(1975): Über nicht-direkte Sprechakte. In: Wunderlich, D.(Hrsg.): *Linguistische Pragmatik*. 2. Aufl., Wiesbaden, 255-287.
- Franck, D.(1975): Zur Analyse indirekter Sprechakte. In: Ehrich, V./Finke, P.(Hrsg.): *Beiträge zur Grammatik und Pragmatik*. Kronberg, 219-231.

- Green, G. M.(1989): *Pragmatics and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Hillsdale, New Jersey.
- Grice, P. H.(1957): Meaning. In: *The Philosophical Review* 66, 377-388.
- Grice, P. H.(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Cole, P./Morgan, J. L.(eds.): *Syntax and Semantics*. Vol. 3: Speech Acts. New York u.a., 41-58.
- Harras, G.(1983): *Handlungssprache und Sprechhandlung*. Eine Einführung in die handlungstheoretischen Grundlagen. Berlin u.a.
- Hindelang, G.(1983): *Einführung in die Sprechakttheorie*. Tübingen.
- Horn, L. R./Bayer, S.(1984): Short-circuited implicature: a negative contribution. In: *Linguistics and Philosophy* 7, 397-414.
- Januschek, F.(1986): *Arbeit an Sprache*. Konzept für die Empirie einer politischen Sprachwissenschaft. Opladen.
- Leech, G.(1983): *The Principles of Pragmatics*. London.
- Levinson, S. C.(1983/90): *Pragmatik* (Orig. im Engl.: *Pragmatics*. Cambridge). Tübingen.
- Levinson, S. C.(1995): Interactional biases in human thinking. In: Goody, E.(ed.): *Social Intelligence and Interaction*. Cambridge, 221-260.
- Morgan, J. L.(1978): Two types of convention in indirect speech acts. In: Cole, P.(ed.): *Syntax and Semantics*. Vol. 9: Pragmatics. New York u.a., 261-280.
- Park, S. Ch.(2000): *Kommunikative Indirektheit*. Eine Untersuchung ihrer sprachtheoretischen Relevanz sowie ihrer Funktionsweise und Leistung. Münster.
- Schiffrin, D.(1990): The principle of intersubjectivity in communication and conversation. In: *Semiotica* 80, 121-151.
- Searle, J. R.(1969): *Speech Acts*. An Essay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Cambridge.
- Searle, J. R.(1975): Indirect speech acts. In: Cole, P./Morgan, J. L.(eds.): *Syntax and Semantics*. Vol. 3: Speech Acts. New York u.a., 59-82.

- Searle, J. R.(1979/82): Metapher (Orig. im Engl.: Metaphor. In: Searle, J. R.(1979): *Expression and Meaning*. Studies in the Theory of Speech Acts. Cambridge). In: Searle, J. R.(1982): *Ausdruck und Bedeutung*. Untersuchungen zur Sprechakttheorie. Frankfurt a. M. (dt. Übers. v. Searle(1979)), 98-138.
- Segerdahl, P.(1996): *Language Use*. A Philosophical Investigation into the Basic Notions of Pragmatics. New York.
- Sucharowski, W.(1993): *Problemfelder einer linguistischen Pragmatik*. Regensburg.
- Weizman, E.(1989): Requestive hints. In: Blum-Kulka, S. et al.(eds.): *Cross-cultural Pragmatics: Requests and Apologies*. Norwood, 71-95.
- Wunderlich, D.(1975): Zur Konventionalität von Sprechhandlungen. In: Wunderlich, D.(Hrsg.): *Linguistische Pragmatik*. 2. Aufl., Wiesbaden, 11-58,
- Zimmermann, K.(1984): Die Antizipation möglicher Rezipientenreaktionen als Prinzip der Kommunikation. In: Rosengren, I.(Hrsg.): *Sprache und Pragmatik*. Lunder Symposium 1984. Lund, 131-158.
- Zimmermann, K./Müller, P.(1977): Indirekte und implizite Sprechakte. In: Deutsche Sprache 5, 238-254.

Zusammenfassung

Zu den pragmatischen Grundlagen der Forschung zur indirekten Sprachhandlung

Park, Song Chol(Korea Univ.)

In der vorliegenden Arbeit wurde versucht, eine adäquate Basis für die Untersuchung der indirekten Sprachhandlung dadurch zu schaffen,

die das Indirektheitsphänomen konstituierenden sozial-kommunikativen Faktoren ans Licht zu bringen. Dazu mußten zunächst einige Unstimmigkeiten der Searleschen Theorie der indirekten Sprechakte, die lange Zeit in der linguistischen Pragmatik dominierte, auf ihre Erklärungskraft sowie ihre Haltbarkeit hin überprüft werden. In dieser Theorie wird davon ausgegangen, mit einer indirekten Äußerung würden zwei illokutionäre Akte gleichzeitig realisiert. Diese Annahme beruht ihrerseits auf der Auffassung, dem Satz wohne eine illokutionäre Rolle inne, wie z.B. dem Interrogativsatz die Rolle der FRAGE. So ist die bei Tisch oft verwendete Äußerung "Kannst du mir das Salz reichen?" einerseits aufgrund des Fragesatztyps FRAGE und andererseits aufgrund der ihr konventionell zuzuordnenden Funktion eine BITTE. Die Frage ist, ob dem sog. sekundär illokutionären Akt, also in diesem Fall der FRAGE, der Handlungscharakter verliehen werden kann. Denn die Handlungsintention des Sprechers liegt eindeutig darin, vom Hörer das Salz überreicht zu bekommen, und nicht darin, sich vom Hörer etwa über seine Fähigkeit zum Salzreichen zu informieren.

Die schwerwiegendsten Mängel der Searleschen Analyse der Indirektheit liegen z.T. darin, bei der Bestimmung des kommunikativen Zwecks einer Äußerung von den sprachlichen Eigenschaften des Satzes ausgegangen zu sein und nicht von dem Prozeß der gemeinsamen Sinnkonstituierung durch die Kommunikationsteilnehmer, wie etwa durch die gegenseitige Annahme und die reflexive Intention. In diesem Zusammenhang erweisen sich die - von Grice so genannten - partikularisierten konversationellen Implikaturen als das Musterbeispiel für die Entstehung und Interpretation der indirekten Äußerung. Hier wird man vor allem - wenigstens auf der abstraktiven Ebene der Gegenstandsanalyse - der kommunikativen Realität gerecht.

Die kommunikative Indirektheit in der Alltagskommunikation, so heißt der allgemeinere Begriff als etwa die Indirektheit auf der illokutionären

Ebene, zeichnet sich dadurch aus, daß sie eine in besonderem Maße partnerorientierte, kooperative und auf die Intersubjektivität unter den Kommunikationsteilnehmern abzielende Handlungsweise darstellt.